

<별첨 1>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확정 비율(Fixed Ratios) 방식

-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대표값에 대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임
 - EU 방식의 손해보험 모델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며, 생명보험 모델은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을 대표값으로 사용함
- 장 점 : 적용이 쉬우며, 주관성이 배제됨
- 단 점 : 산출된 요구자본에 대한 명확한 설명(근거 제시)이 불가능하며,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된 리스크가 제한적임

□ 리스크기준 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

- 리스크를 나타내는 대표 변수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요구자본으로 사용하는 점은 확정비율(fixed ratios)방식과 동일하나
 - 포함되는 리스크의 범위나 산출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 자산 리스크, 신용 리스크, 보험 리스크 등이 보다 정교하고 수리적인 방식에 의해 통합됨
- 장 점 : 확정비율방식에 비해 더 많은 리스크 요소들이 포함되고, 단순하게 주관성을 배제하면서 적용이 가능
- 단 점 : 확정비율 방식과 같이 산출된 요구자본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리스크들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시나리오 기준 방식(Scenario-Based Approaches)

-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과 대차대조표 투영을 통하

여 요구자본을 산출함

- 시나리오는 미래 손실,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 재난적 손실, 인플레이션, 이자율, 투자 수익 등의 다양한 집합으로 구성됨
- 캐나다의 DCAT(Dynamic Capital Adequacy Test), 영국의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미국의 자산적정성 분석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확정비율이나 RBC에 의한 요구자본에 추가적으로 적용됨
- 장 점 : 산출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리스크들의 적용 범위 및 상호작용이 반영됨
- 단 점 : 결과가 시나리오에 의해 임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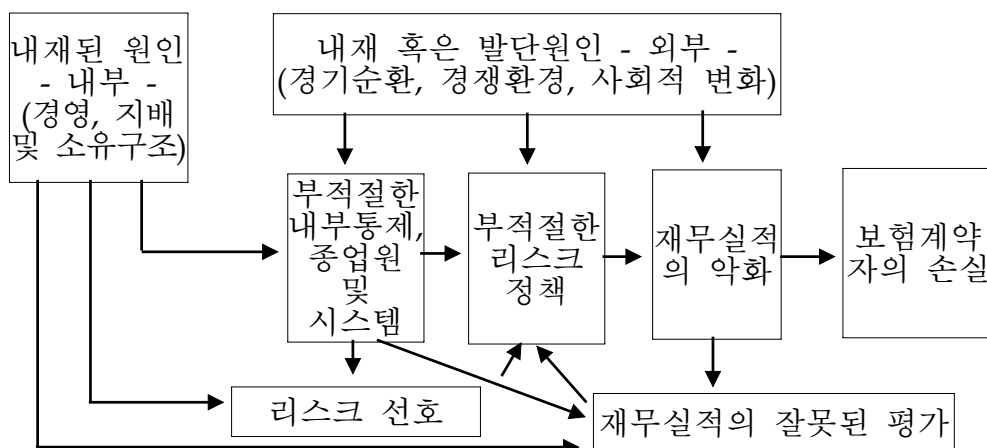
□ 확률론적 방식(Probabilistic Approaches)

- 시뮬레이션 과정상에서 통계적 분포로부터 구해진 리스크 변수들의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즉, 수천, 수만번의 시나리오분석을 수행)
- 장 점 : 정교한 모델이 적용되므로 리스크들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되며, 재보험과 헷지등 내부 리스크 관리과정을 강화할 수 있음
- 단 점 : 산출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방대한 데이터 및 비용이 필요함

<별첨 2> Sharma 보고서¹³⁾ 개요

- 요구자본은 감독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며, 감독당국은 부실화의 예방 및 치유기능을 가진 일련의 감독수단들이 필요함
- 부실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인과사슬(Causal Chain)의 분석이 효율적인 감독을 가능케 함
 - 부실화의 명확한 원인은 잘못된 리스크 정책, 외생요인 및 이로 인한 실적의 악화이나
 -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면 “내재된 내부원인”이 존재함, 즉 경영자, 주주, 외부감사인과 관련된 문제임(예를 들면 전문성의 부족, 성실성의 부족, 이해의 상충, 그룹차원에서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등)
 - “내재된 내부원인 → 부적절한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과정 → 부적절한 리스크 정책 → 보험사는 외생요인에 취약해짐 → 재무실적의 악화 → 보험계약자의 손실”로 이어짐
- 따라서 “Pillar- I”의 재무평가는 보험사의 부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방안(정성평가)의 수립이 필요함

< 리스크 Ma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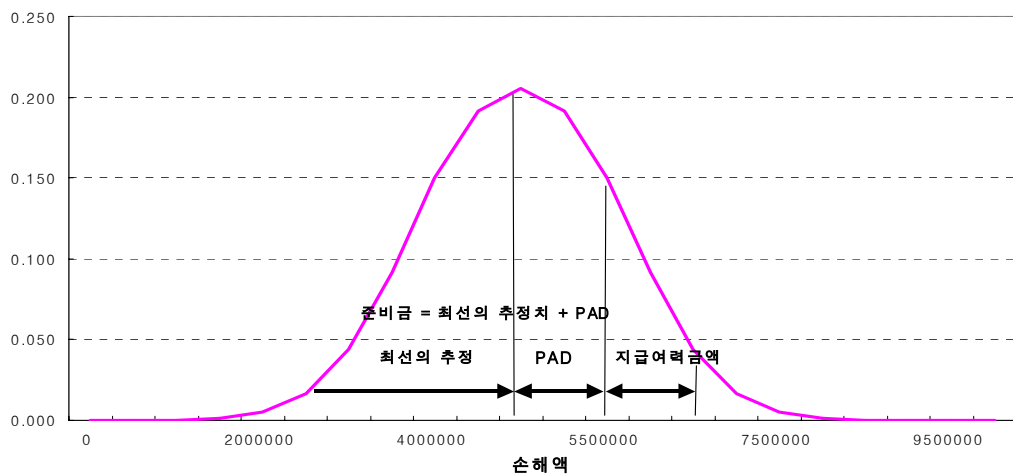


13) EU의 요청으로 영국 금융감독청의 Paul Sharma가 주도한 "유럽감독관협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2002년 12월)

<별첨 3> Total Balance Sheet Approach¹⁴⁾

- EU는 지급여력제도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로 함
 - 보험계약준비금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회사와 낙관적으로 평가한 회사에게 동일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함
 - 따라서 EU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보험회계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부채와 지급여력의 역할 구분을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면, 보험계약준비금의 PAD를 통하여 향후 손해액 변동성의 x%(호주의 경우는 75%로 설정)를 준비하며
 - 지급여력금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y%(통상 1년 이내에 파산하지 않을 확률 99.5%)의 안정성을 확보함

보험계약준비금과 지급여력금액의 역할



14) 국제계리인회에서 최근의 보고서(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2004.1)를 통하여 주장한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Solvency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금액에서 회계상 기표된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채평가방법(보험회계)의 상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임

CEO Report 2004-0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발행일	2004년 6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박 상 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 리스크관리팀(☎368-4105)으로 하여 주십시오.